



St  
KIM  
andrew

St. Andrew Kim Dae Gon Korean Catholic Church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1/16/2022

22-04

Add: 4750 Challen Ave., Riverside, CA 92503 Tel: 951-533-0580 Email: standrewkim@sbdiocese.org Website: www.standrewkimchurch.org

(녹) 연중 제2주일

(Gr) 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셨다.”

“Jesus did this as the beginning of his signs at Cana in Galilee.”

요한 2,11 / Jn 2:11

###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

김대선 바오로, MSC  
Rev. Paul Kim

### 미사시간 Mass Schedule

#### 주일미사 / Sunday Mass

한국어 / Kor. 10:00 am  
영어 / Eng. 3:00 pm

#### 평일미사 / Weekday (Korean)

화/Tu 7:30 pm  
수/W 10:00 am  
목/Th 10:00 am  
금/F 7:30 pm

####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첫 금요일 / 1st Friday 8:00 pm

####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첫 토요일 / 1st Saturday 10 am

#### 고해성사 / Confession

미사 30분전  
(30min. before mass)

#### 병자성사 / Anointing of the Sick

사무실 문의/Call Office

#### 유아세례 / Infant Baptism

사무실 문의/Call Office

#### 혼배성사 / Marriage

사무실 문의 (6 개월전 신청) / Call Office (6 months advance)

#### 사무실 업무 시간 Office Hours

일/월/화/목/금

Su/M/Tu/Th/F 9:00am-4:00pm

수/토 휴무 W/Sat Closed

### 본당 연락처 (Parish Contact)

사무실 (Office)	951-533-0580
총무 (Pastoral Council)	전도미니코 (Dominik Jun) 714-458-4829
연령회 (Senior Ministry)	이마태오 (Matthew Lee) 951-733-0389
전례분과 (Liturgical Ministry)	김마지아 (Matias Kim) 303-882-7022
주일학교 (Religious Ed)	송세실리아 (Irene Song) 951-346-6151

### 구역장 (Territory Leaders)

	(총구역장) 윤(심포로사)	
지혜	임(유스티나)	951-235-1619
통달	현(마리안나)	909-767-8155
의견	김(로사)	909-297-0809
군셈	손(테레사)	805-407-5403
효경	정(바올리나)	951-454-3182
경의	김(테레사)	951-751-5696

### 교황님 기도 지향 (Pope's Intention) 1월 / January

#### 참된 형제애

종교 차별과 박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가, 인류 가족 안의 형제자매로서 지니는 고유한 권리와 존엄을 인정받도록 기도합니다.

#### For true human fraternity

We pray for all those suffering from religious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may their own rights and dignity be recognized, which originate from being brothers and sisters in the human family.

연중 제2주일 (다해) / Second Sunday in Ordinary Time (Year C)

【입당송 / Entrance Antiphon】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All the earth shall bow down before you, O God, and shall sing to you, shall sing to your name, O Most High!

【제1독서/First Reading】 ..... 이사 62,1-5 / Is 62:1-5

【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시편 96(95),1-2,7,22-3,7-8,9와 107(107)3 / Ps 96:1-2, 2-3, 7-8, 9-10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Proclaim his marvelous deeds to all the nations.

【제2독서 / Second Reading】 ..... 1코린 12,4-11 / 1 Cor 12:4-11

【복음 환호송 / Gospel Acclamation】 ..... 2테살 2,14 / 2 Thes 2:14

◎ 알렐루야. / Alleluia, alleluia.

○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

God has called us through the Gospel to possess the glory of our Lord Jesus Christ.

【복음 / Gospel】 † ..... 요한 2,1-11 / Jn 2:1-11

【영성체송 / Communion Antiphon】 ..... 시편 23(22),5 / Ps 23(22):5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You have prepared a table before me, and how precious is the chalice that quenches my thirst.

1/16 미사지향 (Mass Intention)

10am

연미사(D): 이미카엘, 김울리안나, 앙헬렌, 이화순 카타리나, 유시몬 신부님,  
민병애 마리아 막달레나, 김대식 베드로, 이종모 바드리시오,  
윤애자 마리아, 이수관, 박살로메

생미사(L): 홍마리고레띠, 박정대 그레고리, 박정문 제임스, 김리디아,  
김세례자 요한, 김다니엘, 오글로리아와저스틴, 이도미틸라,  
이미자 테레사 & 조앤 가정, 김미카엘라, 차스바스틴엔 가정  
임다니엘, 임요셉, 박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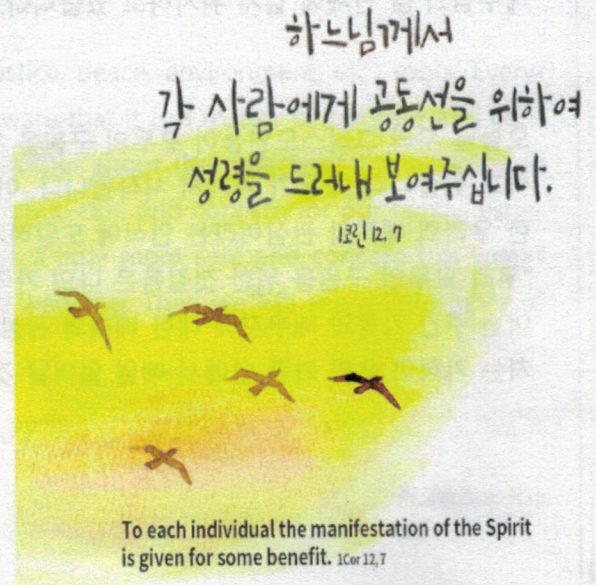
3pm

연미사(D): Margarita Maria, Arboleda

생미사(L): Julie Fennell, Roger Vignocchi

\*\*\*\* 미사지향 신청은 일주일 전에 신청 바랍니다.

Please request mass intention in a week advance.



## 카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

우리는 보통 하느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사랑과 신뢰의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를 잘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에는 가끔 공허한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한국가정법률 상담소가 오랜 기간 실시한 통계연구에 따르면, 80년대에 한해 80만 건에 이르던 한국에서의 혼인수가 2010년에는 30만 건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10만건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보아서 결혼한 세 부부 중 한 부부가 이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자료이니 지금은 이혼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의 부부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이러하니 과연 하느님과 우리 교회를 부부관계로 비유하는 것이 여전히 오늘도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그 가치까지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생태계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것처럼, 혼인생활의 위기가 심각해진 요즘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혼인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지금 시대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가정붕괴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첫 걸음은 가정을 제대로 보살피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인생활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영역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카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에 대한 이번 주일 복음은 우리에게 의미 깊은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번째 기적이 바로 혼인잔치에서였다는 점이 지금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큼니다. 요한복음사가는 7이라는 수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구원에 관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지들을 일곱 가지 사건 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사랑으로 포도주의 맛을 만드셨고, 사마리아여인에게는 사랑의 갈증을 채워 줄 일곱번째 남자가 되셨고, 간음하는 여인을 만나 단죄하지 않으셨으며, 마리아와 마르타를 만나 라자로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향유로 사랑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제자들과 서로를 맡기셨고, 막달레나와 부활 후 만나셨습니다. 이 일곱 표지는 공통적으로 사랑에 기반하고 있고, 공생활과 수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삶 전체에 걸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번째 자리에 카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의 구원을 위해 사회정의, 평화, 환경 등에 기울이는 노력들은 모두 배려와 관심에 근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개인의 문제로 가져오면 결국 이는 가족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우리의 배려와 관심이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카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 첫걸음은 나의 가족과 특히 나의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번 주간 가족과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 조금만 더 마음을 써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분명 혼인잔치의 기쁨이 넘치는 기적이 우리 가족 안에서 매일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세상도 조금 더 밝아질 것입니다.

김준정 리차드 신부

## **What the miracle at the wedding in Cana says to us now.**

We compare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the Church to a husband and a wife. This metaphor describes well the intimacy of love and trust. However, sometimes it feels a void from this metaphor at present. From the long time statistical study of The Korea Legal Aid Centre for Family Relations (KLCFR), the number of marriages up to 800,000 in the 1980s declined to 300,000 in 2010, while the number of divorces stayed around 100,000 at the same period. From a pure numeric perspective, one out of three couples has divorced. We can easily guess that the divorce rate has been increasing for the past 12 years. Provided this perspective on the marriage in present time, it doubts if our metaphor about marriage is still valid.

Nevertheless, the values do not change as easy as the circumstances do. As we pay more attention to the ecosystem after facing severe environmental crises, we are now talking more about the importance of marriage ever than before. Many social scientists claim that various social problems roots in the collapse of the family. That indicates that our first step for making our society better is to care more about the family, and the marriage life is at the centre of the family. In this context, today's Gospel about the miracle at the wedding at Cana delivers us a profound message.

Jesus did his first miracle at the wedding, and it implies a lot to us living in present society. St. John the Evangelist loved the number 7. He introduces the signs of Jesus about redemption in seven events. Jesus turned water into wine at the wedding in Cana, became the seventh man who was going to quench thirsty for love to Samaritan woman, brought Lazarus back with love from the dead when he met Maria and Martha, was anointed with the ointment by a sinful woman, asked Maria and his disciple to take care each other, met Maria Magdalena after his resurrection. All these seven signs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are all based on love and lie throughout the whole life of Jesus, his passion, death, and resurrection, and it was the miracle at the wedding in Cana that was introduced first among those seven signs.

It is care and concern where all our Christian's efforts for social justice, peace, environment, etc., roots. Everything begins from there. If we take it more personally, we can be aware that It is a matter of our care and concern for our own family and spouse. In my reflection on today's Gospel about the miracle at the wedding in Cana, I received the message that our first step for all our redemption is care and concern for our family, especially for our spouse. Why don't we give our family and our spouse a little more care and concern this week? We will see the miracle every day in our family with the joy of the wedding. Then we will see a little more of the better world.

## 묵상거리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모진 박해와 굴욕 가운데에서도  
형제적 사랑을 선택할 것을  
강조하며 한 말을 인용합니다.  
“여러분을 가장 증오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가장 증오하는  
국민에게도 어떤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결코 버릴 수 없는  
좋은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굴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위대한 아름다움과  
힘의 차원에 이르게 될 때,  
악을 물리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차원에 어찌다  
도달한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악을 물리치는 일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 본당소식 / Parish News

### ◆ 이민자 미사 (Migrant Mass)

일시(Date/Time): 1/16(일/Su) 3pm

장소(Place): St. Frances Xavier Cabrini

(12687 California St., Yucaipa, CA 92399)

### ◆ 2022년 본당 달력

많은 교우분들이 새해 달력을 기다리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평화의 모후 성물집에서 롱비치 부두 상황에 대하여 통지 받았습니다. 달력은 한국에서 여기 롱비치 부두에 12/3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연말특수와 펜데믹으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부두 하역작업이 정체되어있다고 합니다. 현재 언제 하역작업이 끝나 달력이 저희에게 인도될지 정확히 예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좀더 기다려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설미사(2/1)

2/6일(일)은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미사예물은 1/23, 1/30 성당 입구에서 접수받습니다.

2/6당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미사후 조상님들을 위한 연도를 바칩니다.

### ◆ 2021년 Tax Statement Letter 필요하신 교우분들은 오늘(1/16) 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 주일학교 임시 비대면

현재 Omicron 확산으로 교구지침에 따라 1/9~3/31 까지 비대면으로 수업할 예정입니다.

Due to rapid increase of Omicron virus, Religious Ed will have online classes from 1/9 -3/31

### ◆ 구역모임

지식: 1/17일(월) 오후 8시 Zoom

의견: 1/22일(토) 오후 6시 장소: 안베드로 형제님택

경외: 1/24일(월) 오후 8시 Zoom

지혜: 1/26일(수) 오후 8시 Zoom

### ◆ 1/4 ~ 2/7 본당 신부님 비자 갱신 및 휴가

이 기간 동안에는 MSC 한국관구에서 김준정 리처드 신부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김바오로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Fr. Paul Kim will be traveling to Korea for visa renewal, please keep him in your prayers.



- ◆ Families interested signing up for Sunday School or would like to volunteer, please contact Irene Song at 951-346-6151

## 2022년 교무금/교구발전기금 신립 2022 Envelope/DDF Pledge

구역	교무금	DDF
경외	\$7,200	\$3,400
군שמ	\$7,460	\$1,260
의견	\$2,800	\$800
지식	\$7,800	\$2,350
지혜	\$13,820	\$4,742
통달	\$6,720	\$1,360
효경	\$6,260	\$1,260
기타	\$480	\$480
합계	\$52,540	\$15,652

\*\*\* 48가정 신립

### ◆ 2022 신립서 / 2022 Pledge Card

아직 2022년 신립서를 제출 못하신 교우분들은 성당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ubmit the pledge cards into the blue box at front of the lobby.

## 1/9 우리들의 정성 Weekly Contributions

주일헌금/Plate	12/26(10am): \$731 12/26( 3pm): \$84.63
교무금 Envelope	\$3,670 오창수, 이동욱, 김병찬, 김선장, 변마태오 이순욱, 임판수, 조광현, 신극우, 신모니카 문현수, 이마태오, 안요한
교구발전기금 DDF	\$380 변마태오, 이동욱, 차귀환, 임판수, 김병찬
합계 Total	\$4,865.63